

하나됨과 나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십시오”

< 고린도전서 1장 3절 >

-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에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나눌 곡식과 과일을 가정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일 저녁에서 7시부터 감사절 찬양예배를 드립니다.
- 선교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웃 공동체 탐방이 8일(토)에 있습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이재훈 · 김다솔 선생 가정 ( 감사 )  
임상희 권사 · 김화인 집사 가정 ( 감사 )

강단을 꽃으로 :

신협(한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2 - 44호

2025년 11월 2일

#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 10월 J국 소식

샬롬~ 가을이 깊어지는 10월의 마지막 주간을 맞이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더욱 주님을 묵상하며 그분께로 향하는 복을 누리시길 기원 드리며 10월 소식과 기도제목 나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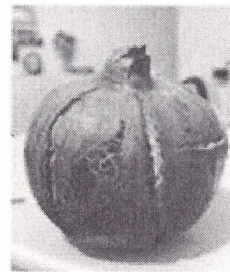
1. 10월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이곳 들녘에는 석류와 올리브 추수가 한창입니다. 신명기 8장8절에 말씀하신 일곱 가지 작물들이 여전히 자라나고 수확함은 세상을 향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임을 믿고 찬양합니다. 이 시즌에는 난민들도 농장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낮은 임금이지만 추수의 계절 가을은 가난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임에 분명합니다.



2. 세 곳의 가정에서 <공부방>을 진행해보니 아이들이 책상이 없으니 바닥에 엎드려서 책을 보고 숙제를 합니다. 급한 대로 플라스틱 책상을 각 가정에 제공합니다. 집중력이 좋아졌으며 공부하는 모습도 더 정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난민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삶의 열심을 주셔서 미래를 향해 열심히 공부하게 하소서.



3. 동역하는 교회의 만수르 장로님 심방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 40년을 함께 하셨던 평생의 동역자 제리야스 장로님이 소천하신 후 장로님의 건강과 교회 상황이 마음에 많이 쓰입니다. 장로님의 건강과 섬기시는 교회가 더욱 굳건하길 기도합니다.



4. <못생긴 석류> 지난 주 공부방 사역을 마칠 즈음 학생들 엄마 파티마 자매님이 석류수확 일을 마치고 귀가합니다. 새벽 5시부터 10시간 노동의 대가는 6디나르(\$8). 매우 저렴하지만 난민 아낙들에게 이 일도 자주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챙겨 준 석류 몇 알, 집에 와 열어보니 상품 가치 없는 못생긴 석류입니다.

그러나 받는 마음엔 감사와 나눈 마음도 기쁨이겠죠. 이심전심을 느끼며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5. 매주 화요일 동역자들과의 모임. 팔레스타인 아마즈드, 시리아 출신 아부마흐무드, 코리안 임 목사 함께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며 사역을 위해 서로 중보합니다.

이번 주부터 성탄절 사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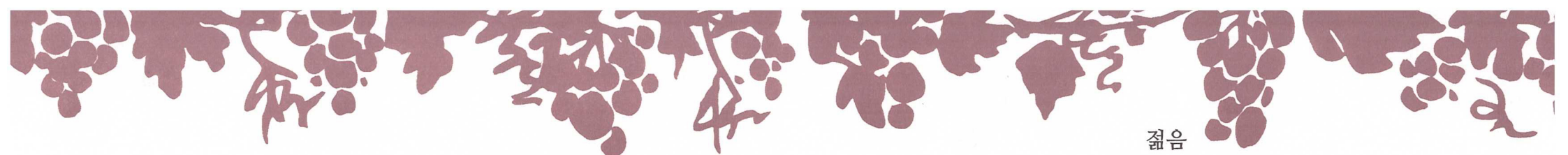


6. <성탄절 블레싱 사역 기도제목>

12월 성탄절 사역을 준비합니다.

지난해 섬겨주신 동역자들과 감사드리며 올해도 이곳 난민들과 가난한 이웃 50가정과 100명의 아동들에게 구제를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블레싱 사역을 진행하려 합니다. 함께 동참해주시길 소망드리며,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 모두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임\*\* 목사 드림



### 한주간의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

<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

### <수요기도회>

인도 : 최기찬 전도사

찬송 : 293, 516 / 384

기도 : 윤호중 집사

성경 : 사사기 5장

제목 : 드보라와 바락의 하나님 찬양

1.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

해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는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다.

적용: 하나님을 자주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는 고백을 자주 하자.

2.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는 승리한다

해석: 결말에 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한 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을 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적용: 주님을 사랑하여 힘찬 삶을 살자.

3. 노래의 특징은 깊은 감정, 시적 표현을 사용(서정적) 서사가 있다

해석: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을 기억하면 좋겠다.

적용: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자.

### 젊음

어김없이 저의 이야기를 쓸까 하다가 사랑방식구들에게 사무엘 울만 (Samuel Ullman)의 <젊음 [Youth]>이라는 시 한편을 소개합니다.

젊음은 인생의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장밋빛 두 뺨, 앵두 같은 입술, 탄력 있는 두 다리가 곧 젊음은 아니다.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시들지 않는 열정이 곧 젊음이다.  
젊음이란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이다.

젊음은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기백이다.

젊음은 무임승차가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힘이다.

젊음은 이십대 소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육십대 장년에게도 있다.

사람은 세월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의 결핍으로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보태지만 열정을 잃으면 영혼에 주름이 진다.

마음을 늙게 하고 정신을 매장시키는 것은 고뇌와 공포와 자포자기다.

경이에 대한 찬미, 미래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 그리고 삶에 대한 환희는 열여섯의 가슴에나 예순의 가슴에나 똑같이 깃들어 있다.

마음속의 안테나가 아름다움과 희망, 격려와 용기, 그리고 솟구치는 힘에 대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있는 한, 당신은 젊은이다.

그 안테나를 내리고 당신의 정신을 냉소와 비판의 얼음관 속에 묻어 버리면, 당신은 스무살의 늙은이다.

그 안테나를 올리고 낙관의 전파를 받아들이면, 당신은 나이에 상관 없이 젊다.

미리내사랑방 김예지 집사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정재훈 목사

###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5 : 1-5  
39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이사야서 57 : 15

95

인도자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 : 1-10

539

설교자  
새작사랑방  
정재훈 목사

###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455

410(3)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허철영 강춘자 / 봉헌위원 : 김예지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에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예 배

##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먼저 찾아오시고, 저희를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삶을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루살렘 여정.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여리고를 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를 부르셔서 그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과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놀랍고 급진적인 변화였습니다.

만남의 은혜. 은혜가 먼저였습니다.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소외당하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앞서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실천적인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사랑이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습니다.

은혜에 감사.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이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이승호 집사

##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 꾸러기학교

가평으로 2박 3일 가을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첫째 날은 음악놀이 터에서 놀았습니다. 노래방에서 실컷 노래를 부르고 드럼도 연주해보았지요. 둘째 날은 아침고요수목원과 바로 옆에 있는 동물원에 갔습니다. 국화가 만발한 가을 정원을 만끽하고 동물원에 가서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여러 동물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짱구(원숭이)는 꾸러기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셋째 날에는 스위스테마파크에 갔습니다. 도착해서 제일 먼저 스위스 전통 옷을 입은 후, 치즈를 녹여 빵, 채소, 소시지를 찍어먹는 스위스 음식 풍위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튜브썰매를 타는 즐거움을 만끽하고 스위스 시계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2박 3일 즐거운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올 해 꾸러기들은 모두 엄마아빠 품을 떠나 잠자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고 여행을 기대하고 즐기는 친구들입니다. 실제 여행 내내 엄마가 보고 싶다거나 집에 가고싶다고 말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 놀고 잘 먹고 화장실도 잘 가고 잘 잤습니다. 정말 고맙고 기특하지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다음에 또 여행 올 사람?” 하고 물으니 다섯 꾸러기가 모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 교사 : 전향옥 >

### 어린이학교

어린이학교 도보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에는 고성 삼포해변을 출발해서 아야진해변을 지나 속초 장사항까지 걸었습니다. 수요일에는 장사항을 출발하여 영랑호를 크게 한 바퀴 돌고 속초 아바이마을을 지나 양양 물치해변까지 걸었습니다. 목요일에는 물치해변을 떠나 낙산사를 둘러보고 동호해변과 여운포리마을, 그리고 하조대해수욕장을 거쳐 기사문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저 모든 길을 어떻게 걸어낼까 싶었는데 어린이들이 이번에도 결국 해냈습니다.

### 배움과 가르침

가정과 공동체에서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것이 여행을 가면 늘 느껴집니다. 그 기도의 힘으로 이번 여행에서도 수많은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보여행에는 특별히 부모님들 몇 분이 도우미로 함께 하시는데 이번에도 부모님들의 특별한 도움으로 걸을 때는 전후방의 안전을 챙겨 주셨고, 쉴 때는 삼시세끼와 지역의 명물 간식을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서 무척 고단한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이 찐 것 같아요.^0^

이제 도보여행을 끝내고 11월이 되어서 학기 마무리, 1년의 마무리를 위해 마음을 써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진 만큼 어린이 친구들의 학교생활도 잘 정리되고 여물어가길 바랍니다.

< 교사 : 전선희 >

### 멋쟁이학교

이번 주는 테마여행으로 수원, 대전, 용인 등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보통 테마여행은 대주제를 가지고서, 그룹별로 소주제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지만, 이번에는 멋쟁이학교 모두가 <과학>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함께 떠났습니다. 과학과 영 친밀하지 못한 몇몇 멋쟁이들은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첫날 <생명우주캠프>에 방문하자마자 그런 기색은 쏙 들어갔습니다.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모여서 함께 연구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장이었는데 대부분의 멋쟁이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곳으로 뽑을 만큼 다양한 연구시설과 실험,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내보이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도 "멋쟁이들은 믿가 다르다"라는 평을 받으며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전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견학, 버섯을 주로 키우는 스마트팜 견학까지 마치고 모둠별로 성심당을 비롯한 맛있는 것을 먹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숙소 근처의 숲을 돌아다니며 산책하다가 들판을 덩굴며 뛰놀고, 수원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재활용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뜻깊은 시간들이 짝찬 시간이었고, 배움도 많은 여행기간이었습니다. 그동안 6학년은 공부도 하고, 교장선생님과 맛있는 것도 먹으며 역시나 알찬 시간을 보냈답니다. 진로를 향한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6학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이어진 >

## 어린이 도보여행을 다녀오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 벼를 베고 난 자리에 난 새싹들과 들판 가득 예쁘게 자란 배추와 무들. 노랗고 빨갛게 물든 산자락. 푸르다 못해 검고 푸른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핑보드를 즐기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걷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더하며 61km 이상 되는 거리를 함께 라는 이름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어린이 도보여행은 강원도 고성에서 양양까지 (해파랑길 46코스~ 43코스) 삼포해변에서 영랑호를 거쳐 낙산사 동호해변 기사문항까지 걷는 코스였습니다. 함께 줄을 맞춰 걸으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며 힘을 내어 걸었습니다.

어려움은 보폭 짧은 1학년 친구들이 언니 오빠들보다 더 열심히 걸어야 하는 것인데 난생 처음 하는 도보여행이라 처음엔 잘 따라 걸다가 힘이 들고 발이 곱질리니 인상이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주위의 언니 오빠들이 가방도 들어주고, 손도 잡아주고, 재미난 끝말잇기도 하며 긴 거리를 함께 열심히 걸었습니다.

밥 먹고 걸기 시작하면 배에서 쉬다 가라고 소식을 보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화장실이 잘 되어 있어서 실수(?) 한 적은 없었습니다. ^^

부모님들은 밥솥이며 식기류를 다 싸오셔서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중 최고는 엄청난 흥계를 직접 공수해 오셔서 아이들에게 일일이 발라서 주셨는데 어떤 아버님은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힘들었다(?)고 합니다. ㅎㅎ~ 함께 걷기도 하고 사진과 영상도 찍어서 전체 부모님께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이들과 여행 마니또를 했는데 맛난 간식을 다른 사람 시켜서 주기도 하고, 힘내라고 얘기도 해주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도보여행에서 멋진 자연과 어린이 식구들의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함께여서 행복했고, 함께 라서 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모든 일정 가운데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사랑방 식구들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가을 식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떠나 볼까나~

그루터기사랑방 이현숙 집사

## <주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찬 송 : 361장, 496장

성 경 : 시편 126편

말 씬 : 눈물로 뿌린 씨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APEC >

APEC CEO 정상회담이 2025년 10월 29일 - 31일에 경주에서 열립니다. 각 국의 정상들이 세상의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산돌교회를 위해>

창립 14주년된 교회로 기도와 선교하는 공동체로 표명하며 다문화, 도심 선교사역을 하며 공동생활, 공동예배 참여하여 공동체 영성을 추구하고 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1) 여행 중인 공동체 학교 학생들을 위해

2) 수험생들을 위해 (15일)

3) 10/31 금 방문하는 영락교회 권사회를 위해

## <생활공동체 소식 >

사랑방공동체 학교들이 모두 여행이어서 교사인 공동식구들은 모두 각처로 흩어져 여행 일정을 감당했습니다.

여행을 가지 않은 공동식구들은 간만에 공동식사도 쉬면서 쉼을 가졌습니다.

금요일에는 영락교회 권사님들 40분이 공동체에 방문하시는 일정이 있어 자리를 마련하고 다과를 준비해서 대접했습니다.

< 장영미 전도사 >